

남녘민심의 목소리 - 《막말외교, 빈손외교, 외교참사》 윤석열을 퇴장하라!

지금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의 해외행각에 대한 비난이 날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우선 아무런 외교적 성과도 없는 빈털터리행각이었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데 역도는 유엔총회연설에서 《자유》이니, 《런데》이니 하면서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관심이 있는 듯이 놀아대지만 내외여론의 초점으로 되고있는 조선반도문제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은 역도의 유엔연설이 《알속이 없애는 맹랑연설》, 아무런 구상과 전략도 없는 《맹청연설》이라고 야유 조소하고 있다. 또한 남조선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지금문제, 일본과의 관계문제는 공식회담을 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말도 비쳐보지 못하고 초라한 꼴로 되돌아왔다고 하면서 그러고도 《외교성파》에 대해 말할 체면이 있는가도 역적패거리들에게 틀어대고 있다.

미국과 일본것들에서 무시와 하대를 받은 굴욕행각이었다는 비난도 터져나오고 있다.

남조선야당들과 각계층은 이번엔 윤석열역도가 미국상선과 만나 《인클레잡속법》문제, 금융안정과 《대북공조》 등 당면한 골치거리들을 해결하겠다고 떠들었지만 공식회담은 고사하고 미국대통령의 광무니만 따라다니다가 어느한 회의뒤끝에 고작 48초밖에 만나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상선은 윤석열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다고 하면서 외교적참사만 당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일본수상에게 기진기진 찾아가서는 격식도 갖추지 못한채 겨우 30분밖에 만나지 못한다다가 섬나라것들에게 시종일관 맹대만 받고 쌍방 《관계개선》에서 아무런 진척도 보지 못한 하나마나한 회담을 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우기 회담뒤끝에 일본것들이 《락시회담》이 아니고 《비공식회담》이었다. 거들떠보는 듯이 놀아대지만 내외여론의 초점으로 되고있는 조선반도문제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은 역도의 유엔연설이 《알속이 없애는 맹랑연설》, 아무런 구상과 전략도 없는 《맹청연설》이라고 야유 조소하고 있다. 또한 남조선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지금문제, 일본과의 관계문제는 공식회담을 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말도 비쳐보지 못하고 초라한 꼴로 되돌아왔다고 하면서 그러고도 《외교성파》에 대해 말할 체면이 있는가도 역적패거리들에게 틀어대고 있다.

미국과 일본것들에서 무시와 하대를 받은 굴욕행각이었다는 비난도 터져나오고 있다.

남조선야당들과 각계층은 이번엔 윤석열역도가 미국상선과 만나 《인클레잡속법》문제, 금융안정과 《대북공조》 등 당면한 골치거리들을 해결하겠다고 떠들었지만 공식회담은 고사하고 미국대통령의 광무니만 따라다니다가 어느한 회의뒤끝에 고작 48초밖에 만나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상선은 윤석열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다고 하면서 외교적참사만 당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한 행동은 하였다고 하면서 초보적인 외교상식과 관계조차 모르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내세운것이 부끄럽다고 하고 있다. 특히 역도가 미국행각간 미국회 것들을 거들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와 같이 사람들을 아연하게 한 소리를 제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내외에 급속히 퍼진 데 대해 《력대금대행사고》, 국제적인 망신으로 규탄하면서 이제 와서 중색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변명할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책을 인정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역도를 몰아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역도의 측근들이 《대통령》이 말한 국회는 미국의 국회가 아니고 남조선 《국회》이고 《바이든》이라고 변명하는것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변명하였지만 그것은 역적패당에 대한 더 큰 비난과 조소, 야유거리가 되었다. 남조선 각계층은 미국대통령의

이름을 《조 날리면》이라고 조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가사의 《휘날리며》를 《휘바이든》으로, 《흔날리는》을 《흔바이든》으로 고쳐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남조선언론들도 진보에게는 《바이든》으로, 보수에게는 《날리면》으로 들리고 있다. 정치적견해가 청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문본을 발표해야 할것이라고 야유하고 있다. 지어 보수세력내부에서도 《윤석열은 정신차리라.》는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틀에 나가도 샌다고 윤석열역도가 해외에서 부린 추태는 그 어떤 외교적실수가 아니라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품격도, 자질도 갖추지 못한 저능아, 인간추를, 불망나니의 괴랄수 없는 숙명인것이다. 이런저런 권력의 자리에 그대로 두면 더 큰 재앙과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김정혁



대세가 어떻게 흐르든지도 모르고

최근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기절초풍한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화된 《확장역제력》을 제공받기 위해 《북핵 위협설》을 크게 떠들며 《핵우산》제공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려고 설쳐 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공화국에 대해 온갖 험담들을 해대고 있고 지어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화된 《확장역제력》을 제공받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 있다. 이자체가 역적패당이 반민족적인 동족대결과 전쟁에 환경이 되었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의 《핵우산》을 동족대결의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추악한 명줄을 부지하기 위한 《신의 방패》처럼 여기고있지만 그것은 가스롭고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 절대적위협에서 역적패당이 운명의 수호신처럼 떠돌아다니는 미국자세가 국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있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 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역제력, 절대적합이다.

공화국은 반제투쟁의 성새, 사회주의의 강경부로서 온갖 적대세력의 간섭과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표를 따라 자위적 국방력건설을 완강히 추진하여 미국이 일반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냈고 얼마전에는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역사적대업을 이룩하였다.

그러므로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공화국의 핵무력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의문시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공화국에 대해 온갖 험담들을 해대고 있고 지어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화된 《확장역제력》을 제공받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 있다. 이자체가 역적패당이 반민족적인 동족대결과 전쟁에 환경이 되었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의 《핵우산》을 동족대결의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추악한 명줄을 부지하기 위한 《신의 방패》처럼 여기고있지만 그것은 가스롭고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 절대적위협에서 역적패당이 운명의 수호신처럼 떠돌아다니는 미국자세가 국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있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 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역제력, 절대적합이다.

공화국은 반제투쟁의 성새, 사회주의의 강경부로서 온갖 적대세력의 간섭과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표를 따라 자위적 국방력건설을 완강히 추진하여 미국이 일반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냈고 얼마전에는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역사적대업을 이룩하였다.

그러므로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공화국의 핵무력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의문시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공화국에 대해 온갖 험담들을 해대고 있고 지어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화된 《확장역제력》을 제공받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 있다. 이자체가 역적패당이 반민족적인 동족대결과 전쟁에 환경이 되었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의 《핵우산》을 동족대결의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추악한 명줄을 부지하기 위한 《신의 방패》처럼 여기고있지만 그것은 가스롭고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 절대적위협에서 역적패당이 운명의 수호신처럼 떠돌아다니는 미국자세가 국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있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 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역제력, 절대적합이다.

공화국은 반제투쟁의 성새, 사회주의의 강경부로서 온갖 적대세력의 간섭과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표를 따라 자위적 국방력건설을 완강히 추진하여 미국이 일반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냈고 얼마전에는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역사적대업을 이룩하였다.

그러므로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공화국의 핵무력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의문시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공화국에 대해 온갖 험담들을 해대고 있고 지어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화된 《확장역제력》을 제공받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 있다. 이자체가 역적패당이 반민족적인 동족대결과 전쟁에 환경이 되었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의 《핵우산》을 동족대결의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추악한 명줄을 부지하기 위한 《신의 방패》처럼 여기고있지만 그것은 가스롭고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 절대적위협에서 역적패당이 운명의 수호신처럼 떠돌아다니는 미국자세가 국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있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 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역제력, 절대적합이다.

공화국은 반제투쟁의 성새, 사회주의의 강경부로서 온갖 적대세력의 간섭과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표를 따라 자위적 국방력건설을 완강히 추진하여 미국이 일반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냈고 얼마전에는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역사적대업을 이룩하였다.

공화국은 반제투쟁의 성새, 사회주의의 강경부로서 온갖 적대세력의 간섭과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표를 따라 자위적 국방력건설을 완강히 추진하여 미국이 일반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냈고 얼마전에는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역사적대업을 이룩하였다. 그러므로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공화국의 핵무력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의문시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공화국에 대해 온갖 험담들을 해대고 있고 지어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화된 《확장역제력》을 제공받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 있다. 이자체가 역적패당이 반민족적인 동족대결과 전쟁에 환경이 되었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의 《핵우산》을 동족대결의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추악한 명줄을 부지하기 위한 《신의 방패》처럼 여기고있지만 그것은 가스롭고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 절대적위협에서 역적패당이 운명의 수호신처럼 떠돌아다니는 미국자세가 국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있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 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역제력, 절대적합이다.

썩고 병든 사회제도가 낳은 새로운 반항세력

최근 남조선에서 썩고 병든 사회제도를 반대배격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무산자들이 《프레카리아트》가 주요 사회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과 《무산자》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를 합성함으로써 남조선에서는 이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프레카리아트》들은 초보적인 교육도 받고 대학까지 졸업하였지만 일자리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인것으로 하여 반인민적이며 불평등한 남조선정치체제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국도의 불만과 반감을 품고 치지개선과 로동권보장,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에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8%에 해당하는 807만명이 공장에서 정식 로동자로 일하지 못하고있으며 여기에 임시고용로동자, 자유계약로동자, 풀타임로동자들까지 포함하면 11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에 속하는것으로 된다고 한다.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하층민들의 편대조직인 《전국민회해방연대》, 《민회해방전선연대》 등에 망라되어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과 함께 비참한 생활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다. 얼마전에도 《프레카리아트》들은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과 함께 《로조법》개정과 차별없는 로동권 및 안전한 일자리보장, 사회대변력을 주장하며 반 《정부》, 반자본주의투쟁을 벌려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4차성구싸움에 비낀 추악상

하지만 역도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골라내서 동용하겠다고 하는 갈부림밖에 할 줄 모르는 검찰출신측근들을 비롯하여 자기에게 아무 굴종하는 하수인들, 너넨네로부터 추천받은 부패한자들을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요직에 끌어들이고서 집권 초기부터 내외의 강한 비난

《국민의힘》의 대표였다가 윤석열역도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리준석이 《양두구육》, 《3성가노》, 《지록위마》 등을 내뿜은 윤석열역도와는 《양두구육》, 《3성가노》, 《지록위마》, 《후세무민》 따위로 맞바치는 식이다. 가관은 두 패거리가 저마끔 깨면 4차성구들이 악덕과 패를 생리로 하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국민의힘》의 본래를 고스란히 발가놓고 있는것이다. 《양두구육》이 바로 그렇다. 양대가리를 절여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로서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좋은것을 내놓고 뒤에서는 나쁜것을 하는 행위를 띠며한 성구인데 윤석열역도가 바로 그런 짓거리를 하는 전형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정》과 《법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야맨 윤석열역도이다.

《3성가노》는 어떤가. 비천한 목숨유지를 위해 성이 다른 여러 권력자들에게 비로 둔 노예라는 뜻으로서 주변나라의 멧책에서 나오는 이 성구는 미일상전을 해내 비처럼 심기는 윤석열역적패당과 리준석과 같은 시정배들에게 꼭 들어맞다고 해야 할것이다.

《지록위마》는 어떤가. 《양두구육》, 《3성가노》, 《지록위마》 등을 내뿜은 윤석열역도와는 《양두구육》, 《3성가노》, 《지록위마》, 《후세무민》 따위로 맞바치는 식이다. 가관은 두 패거리가 저마끔 깨면 4차성구들이 악덕과 패를 생리로 하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국민의힘》의 본래를 고스란히 발가놓고 있는것이다. 《양두구육》이 바로 그렇다. 양대가리를 절여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로서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좋은것을 내놓고 뒤에서는 나쁜것을 하는 행위를 띠며한 성구인데 윤석열역도가 바로 그런 짓거리를 하는 전형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정》과 《법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야맨 윤석열역도이다.

《후세무민》은 어떤가. 《양두구육》, 《3성가노》, 《지록위마》 등을 내뿜은 윤석열역도와는 《양두구육》, 《3성가노》, 《지록위마》, 《후세무민》 따위로 맞바치는 식이다. 가관은 두 패거리가 저마끔 깨면 4차성구들이 악덕과 패를 생리로 하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국민의힘》의 본래를 고스란히 발가놓고 있는것이다. 《양두구육》이 바로 그렇다. 양대가리를 절여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로서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좋은것을 내놓고 뒤에서는 나쁜것을 하는 행위를 띠며한 성구인데 윤석열역도가 바로 그런 짓거리를 하는 전형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정》과 《법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야맨 윤석열역도이다.

현대판 《을사조약》

우리는 형제지간이야!

부자지간이라고 말해도 감지덕지합니다.

우리는 형제지간이야!

부자지간이라고 말해도 감지덕지합니다.

우리는 형제지간이야!

부자지간이라고 말해도 감지덕지합니다.

우리는 형제지간이야!

최근 남조선에서 썩고 병든 사회제도를 반대배격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무산자들이 《프레카리아트》가 주요 사회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과 《무산자》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를 합성함으로써 남조선에서는 이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프레카리아트》들은 초보적인 교육도 받고 대학까지 졸업하였지만 일자리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인것으로 하여 반인민적이며 불평등한 남조선정치체제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국도의 불만과 반감을 품고 치지개선과 로동권보장,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에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8%에 해당하는 807만명이 공장에서 정식 로동자로 일하지 못하고있으며 여기에 임시고용로동자, 자유계약로동자, 풀타임로동자들까지 포함하면 11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에 속하는것으로 된다고 한다.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다고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

최근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이 일본것들에게 《관계개선》을 구걸하며 비굴하게 놀아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굴종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리고 있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대한 배상을 거부하며 오만하게 놀아대는 섬나라것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대신 오히려 저들이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방안》이라는것을 꺼내들고 이와 관련한 《정부》와 민간단체들간의 협의회를 벌려놓으며 사기게 놀아대는 섬나라것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단호히

대신하여 피해자배상을 하겠다는것을 굴욕행위이다.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첫째로 사회이고 다음은 배상이다. 일본의 사회와 책임있는 배상을 외면하는 당국과 민간단체들간의 협의회는 필요없다.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했다니 세상에 이런 경악스러운 특등바보가 어데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죄를 덮어주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또다시 죽이는 친일굴종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

대신하여 피해자배상을 하겠다는것을 굴욕행위이다.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첫째로 사회이고 다음은 배상이다. 일본의 사회와 책임있는 배상을 외면하는 당국과 민간단체들간의 협의회는 필요없다.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했다니 세상에 이런 경악스러운 특등바보가 어데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죄를 덮어주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또다시 죽이는 친일굴종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

대신하여 피해자배상을 하겠다는것을 굴욕행위이다.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첫째로 사회이고 다음은 배상이다. 일본의 사회와 책임있는 배상을 외면하는 당국과 민간단체들간의 협의회는 필요없다.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했다니 세상에 이런 경악스러운 특등바보가 어데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죄를 덮어주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또다시 죽이는 친일굴종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

대신하여 피해자배상을 하겠다는것을 굴욕행위이다.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첫째로 사회이고 다음은 배상이다. 일본의 사회와 책임있는 배상을 외면하는 당국과 민간단체들간의 협의회는 필요없다.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했다니 세상에 이런 경악스러운 특등바보가 어데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죄를 덮어주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또다시 죽이는 친일굴종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

대신하여 피해자배상을 하겠다는것을 굴욕행위이다.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첫째로 사회이고 다음은 배상이다. 일본의 사회와 책임있는 배상을 외면하는 당국과 민간단체들간의 협의회는 필요없다.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했다니 세상에 이런 경악스러운 특등바보가 어데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죄를 덮어주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또다시 죽이는 친일굴종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

